

지저스타임즈 본지 이사회 첫 모임 가져

본지 취지와 목적,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논의

지저스 타임즈발행인 정가남 목사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5가 기독교 백주년에서 이사와 논설위원이 본지 창간기념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용진 목사의 지도로 회의가 시작되어 본지 발행인 정가남 목사가 본지를 발행하게 된 취지

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자 이를 위하여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신문발행에 최선을 다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과 신문과 인터넷 방송(http://cpj.kr) 운영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종로 5가에 사무실을 두는 것과 원만한 운영체제를

위하여 이를 협력해 나갈 이사진을 더 추대할 것을 결의하고 현 이사와 논설위원이 뜻을 같이할 분들을 추천, 다음 이사회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또한 본지 논설위원을 10여명 더 추대하여 신문 방송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것과 교계의 훌륭한 분을

추천 주필로 추대할 것과 영성있는 설교와 강해를 연재, 교계 복음지로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을 다짐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본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하고 끝으로 본지 논설위원 회장 목사 기도로 마쳤다.

“한국교회 너무 귀족화 됐다”

조용기 목사 한복합 기도회서 지적...각성과 회개 촉구

“한국 교회가 너무 귀족화 됐다.”면서 조용기 목사가 한국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지난 11일 강변교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주제로 신년하례회 및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육한흠 목사(사랑의교회 원로목사) 등이 참여,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다.

육한흠 목사는 “한국 교회 바라보는 게 편치 않다”면서 “세속주의라는 무서운 세균에 감염되어 저항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할 말 다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목회자가 목자의 양식을 갖고 목회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성경을 듣는 이의 기회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르쳐 성경의 편식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한국 교회가 너무 귀족화 됐다.”면서 “평양대부흥 1백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집회가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교회가 귀족주의로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으로 전락하면 한국사회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목사는 “서해안기름유출사고 때 전 교회가 분사에 나

섰을 때 한국의 인문들은 우리를 칭찬했으며 저들을 도울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을 돌아볼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섬김과 사랑을 강조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김선주 목사의 제자이자 한국 교계 원로인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목사)와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도 박종화 목사(경동교회)도 함께 참여해 주제강연을 했다.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희망 축제 ‘성황’

한기총·한희년, 6천명 초청

지난 13일 장충체육관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규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 희망연대(상임대표 이철신목사, 이하 한희년)는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 6천명을 초청, 지난 13일 장충체육관에서 ‘2008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 희망축제’를 개최함으로 소외된 이웃 섬김을 향한 2008년의 사랑의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뎠다. 금번 행사는 한기총이 주최하며, 한희년과 지구촌사랑나눔이 주관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했다.

한희년 외국이주민본부장 진희근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만남과 희망의 한마당은 각 국가별 기수단의 입장과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규목사는 개회선언, 한희년 공동대표인 최우목사(종교교회)의 기도후, 한희년 상임대표 이철신목

사(장락교회)의 희망의 메시지, 한기총 총무 최희범목사의 격려의 메시지와 한희년 공동대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정삼지 목사(제자교회),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한태수 목사(은평교회)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별히 코리아안드림을 가지고 타국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젠 화제 참사로 희생된 중국동포 13명과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면서 유가족을 위한 성금도 모금했다.

이어가진 2부 위로와 축제의 한마당은 아나운서 김병찬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기 트로트 가수 주현미씨가 히트곡을 선사하며, 전지현 악그룹 아조필의 축하공연과 함께 스리랑카, 러시아, 네팔,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각국 전

통 문화공연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을 위로했으며, 3부는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목사가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층에 미증복자를 위한 합법화 설명회와 함께 다문화 다민족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참석한 전체가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한희년은 국내 10개 교단에서 중진 목회자

12명씩 120명이 참여한 초교파 사회봉사단체로 금번 행사는 교계 연합기관인 한기총이 주최하고, 초교파 연합봉사단체인 한희년이 주관하고, 외국인 노동자사역의 전문기관인 지구촌사랑나눔이 실무를 맡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사회연합사업의 모델링 행사로 추진되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곳은 일각 사랑이

2008년 밝히는 지저스 타임즈가 되기를... 영 영수



경기도 안양시 대광교회 담임 영영수 목사(크리스찬포토 이사장)의 휘호

근하신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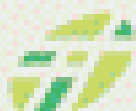
건강한 교회~

홍성제일교회

오종실목사 외 성도 일동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니라...”
[마7:8]



한국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www.hsjeil.org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952번지
TEL : 사무실 041-634-0441 목양실 041-633-9146

■ 이사칼럼 ■

사랑과 축복은 같이 가는 것

사랑과 축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 축복도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28절 하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남을 괴롭히고 내가 웃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본인도 괴롭습니다. 반면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내게 만족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끔 선교 사역을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 기쁩니다.” 행복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축복도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선교를 위해 최선의 헌신을 하기로 결심하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전화기 건너편에서 기쁨과 떨림과 감동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에 환희가 있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분의 헌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헌신을 선포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월세를 내며 힘들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월세 보증금뿐이었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은 헌신을 하겠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선포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사랑이 많은 부부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선교하고 싶어 하는 저들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돕겠다고 나서는 일입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이코라는 여류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중의 하나가 빙점을 쓰게 된 계기

소진우 목사
본지 이사
서울예복교회담임



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월급이 적었습니다. 그 월급만으로 한때 집을 꾸리기가 어려워 집 앞에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돈만 벌었다고 악착같이 하지 않고 오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아내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웃 가게들이 어려운데 그들이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주문하는 물량을 줄였습니다. 어떤 물건은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저 가게에 가면 살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다른 구멍가게로 손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를 하나씩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기쁨과 보람도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 여유 시간을 가지고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하여 마침내 빙점이라는 소설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나눠주는 사랑을 통해 이웃도 축복 하였고, 그녀 자신에게도 놀라운 창조성을 주심으로 축복해주셨습니다. 그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실패해도 사랑은 승리합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과 축복의 열쇠입니다. 살다 보면 권세와 힘과 능력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건재한가? 나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목회에 활력을 넣은 총전의장

서경노회노회장 손재규 목사(신년감사예배와 하례식) 오후 6시~15일(화) 오전 10시까지 영종도 신공항 위너스관광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화가예배한 분위기 가운데 노회 연합대회를 가져 목회에 활력을 불어 넣은 총전의장이 되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노회장 손재규 목사는 담후 4:10~11절 말씀을 봉독, “출발과 지속의 힘”이란 제하

의 말씀을 선포한후 신년 새해를 맞은 목사 사모 장로 그 외 교역자를 향해 축복을 기원하고 예정한 영총회 서경노회는 앞장 서 나가는 데 모범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2부는 책사대회가 열려 각종 상품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폭소를 자아냈다.



손재규 목사



“이제는한교단의교역자..주안에서하나”

예장 한영총회 신년하례 및 교단합동감사예배



기림하여 합동선언문 발표하는 모습

예장 한영총회(총회장 한영길목사)와 개혁신(총회장 조성훈 목사) 측이 합동을 선언, 교단 명칭을 한영총회로 하고 2008년 1월 2일 오전 11시 구로구 개봉동 415-9 한영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2008년 신년하례 및 교단합동 감사예배를 드렸다.



총회장 한영길 목사

합동총회 총회장으로 추대된 한영길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할 때까지 많은 노회 및 지 교회의 모든 성

도들과 총회를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하고, 우리에게 지난 해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9월에 예정(한영측으로 개명총회를 비롯하여, 이제는 한 교단의 교역자가 된 예정(개혁)측과의 합동으로 교단명칭은 한영으로 하되, 교단역사는 교단총회 92회기를 계승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 신년하례 및 교단합동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는 그동안 분열사로 점철되어졌던 한국교회에 하나가되는 작은 빛으로 보일지라도 그 과정은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인간적 계산, 기득권적인 주장보다 주안에서 하나가되는 것을 향한 우리 모든교

육자들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하며, 올해 우리 교단은 합동한 교회들로 제 93회 성 총회를 마지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부총회장 강진문목사의 사회로 손재규 목사(서경노회장) 기도, 남궁선 목사(총회서기)가 성경봉독, 강해은 목사(성인교회)가 특송, 부총회장 조성훈 목사가 “더 잘되는 한 해의 총회 상을 만들자”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기도는 나라와 민족 통일위해 김삼열 목사(평안노회장), 총회발전을 위해 김상철 목사(경서증경노회장), 신학대학발전을 위해 이억범 목사(부총회장), 한국기독교를 위해 강준식 목사(중앙교회), 세계 선교를 감옥순 목사(중부노회장), 지 교회부흥을 위해 염동팔 목사(사랑과 능력교회), 경제회복을 위해 이애복 목사(사랑의교회)가 기도했다.

이어 총장 한영훈 목사가 환영사, 장사무엘 목사(총회부흥사대표회장)가 격려사, 강갑산 목사 축사, 교단합동선언문 낭독, 대외총무 성경모 목사 광고, 오세훈 목사가 축도를 하고 마쳤다.

“수많은 영혼 살리는 아름다운 역할 감당”

예장총회 부흥사회, 신년하례회 및 실행위원회

예장 총회부흥사회(합동 대표회장 김인기 목사)는 1월 11일 경기 군포시 산본 지역에 위치한 성장교회(김인기 목사)에서 2008년 총회부흥사회 신년하례 및 제1차 실행위원회 모임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2008년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한국 복음화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대표회장 김인기 목사는 2008년이라는 새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 열려진 공간에 어느 누구의 작은 향기도 필요로 하는이에게 맑은 샘물과 같은 향기로 남는다. 또한 어떤 이의 향기는 다른 이

들에게 독소를 작용해 수많은 영혼을 잃게 할 것이며, 어떤 이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작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두운 세상의 빛을, 힘을 입어가는 교회에 활력소를,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우리 부흥사들의 중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들의 헌신된 작은향기가 때로는 이를 필요로 하는이들에게 맑은 샘물과 같은 생명의 향기로 남을 것이다.

2008년은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이다.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고, 교회사적으로는 2007년이 평양 대 부흥을 넘어 이제는 민족복음화 대 부흥운동을 추진해야하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진 해이다. 이때에 더욱 우리 부흥사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려드리며 또한 이 민족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부흥사회가 더욱 회원들 간에 의미 있는한 해가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1부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 김인기 목사의 사회로 장순직 목사(상임의장)가 기도하고, 서기 최병택 목사가 회원을 호명, 최점삼 목사(사무총장)가 사무보고, 이광호 목사(회계)가 회계보고를 했으며, 신안건을 토의하고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Jstimes.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D-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발행·편집인 : 정기남 목사	
■ 이 사 : 최종림목사, 박복수목사, 오종철목사, 권세홍목사, 현병우목사, 박우관목사, 서영범목사, 권대국목사, 홍영균목사, 정민호	
■ 논설위원 : 최정희목사, 권원근목사, 김성익목사, 이기선목사, 배경락목사	
(주)10-8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51-3원안빌딩 5층 여인터넷방송국(E-mail: webmaster@jstimes.kr)	
대표전화 : 011-468-6674, 041-863-6574, 02-743-1654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정동제일교회

KYUNG DONG FIRST PRESBYTERIAN CHURCH

“약속의 땅으로 가는교회”(여호수아 6:20)



담임목사이기 경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부 목 사 박진숙 이길자 송 혁
- 교육전도사 고미희 정명순
- 원로 장로 백선규
- 은 퇴 장로 강진섭 이종철 이한수
조두금 박영기 이충희
- 시 무 장로 구재서 김규태 오대현 윤성로 구영서
홍성선 이원춘 김춘식 유양배 돈운승
이정빈 남궁찬 박상천 오세길 박대성

“우리는 텐트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 3대 생활
새벽으로 산다
주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 4대 사역
• 문화사역 • 가정사역
• 복지사역 • 인간사역
- 3대 지침
제교회 전문화와 교회현장 생활화
3년마다 배가
3년마다 세계교회 1개씩

131-87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92-1

TEL.(02)2209-5441~3 FAX.(02)2209-5444 http://www.kdfchurch.or.kr



사회와 민족 향해 희망과비전 제시



이용규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역사’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빛의 신 인류에게 내린 큰 축복입니다. 공동체는 물론 각 개개인이 스스로 지나온 족적을 살피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가 시간의 한 지점을 정해 ‘새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점으로 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 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대부분을 100주년을 맞아 교회의 영적 갱신과 부흥을 사모하며 한해를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깝게는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선출하는 선거가 있었고 한미 FTA 체결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탈레반 피랍사태와 대인지역의 대규모 기름유출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사회를 이끌어가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한해를 후회와 미련으로 주저하기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너무도 광대합니다. 역사는 후회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 을 내딛는 사람들에 의해 그 방향이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눈앞의 정황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으로 자 신을 낮추고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적 가치 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혼탁한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에서 사회와 민족을 향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는 말로만의 외침이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전 적인 신뢰를 통해 이를 수 있습니다.

2008년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사명을 자각한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성취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 시 자각하는 새해의 시작에 서서, 사명 감당을 위해 스스로 다짐하는 모든 한 국교회 성도들 위에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엄신형 목사
종총교회담임, 한기총 대표회장(변)



소진우 목사
본지 이사·서울예복교회 담임



이선 목사
핵심교회담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 교계와 일천이 백만 그리스도인들과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1.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와 온 위정자들과 한국 교계가 나라와 민족을 위 하여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 랍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 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고 전폭 도와주

시므로 경제 대부흥을 이루고, 정치 안정과 변혁 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국 교계가 연합과 일 치를 이루어 민족 복음화 및 남과 북이 함께 복음 으로 통일을 이루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개 교회마다 대부흥을 이루고, 교단과 선교단체 마다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며, 일천 이백만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성령 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사이버 이단과 각종 무속 신앙과 퇴폐향락 문화가 뿌리째 뽑히지

고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새로운 변 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새해 대통령과 교계와 온 국민의 마음 속에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하신 역사 속에 알아야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축복 의 햇빛, 사랑의 햇빛이 온 누리에 충만하므로,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기근과 재난과 핍박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 평 화로운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새롭게, 주님과 의 관계를 새롭게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은 우리가 아직 가보 지 못한 미지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막연 히 뚫 대로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미지의 시간으 로 출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의 놓여진 시간 들은 우리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일종의 황무지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황무지를 어떻게 개간하느냐에 따 라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되며 우리의 미래가 결

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황무지 같은 시간을 개간 하여 빛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 신앙을 새롭게 하 며, 주님과 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후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사도바울의 건강한 신앙자세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가야” 하겠습니

다.(빌3:13-14)

그리고 생활을 새롭게 하고, 열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 하셨습니다.

그러니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그 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 비전을 갖고, 감사하며

신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들은 결핍되어 있 는것만 생각한다”고 했고, ‘놀란센트필’은 “인 간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 자체대로 그런 인간이 된다”고 했으며 ‘에머슨’은 “그가 종이 일 생각하고 있는것이 곧 그 인간이다”고 했습니 다.

그러므로 새해는 첫째,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신

에 대하여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기에라도 짧은 인 생인데 왜 나쁜 것을 생각하십니까?

둘째, 비전을 갖고 삽시다.

칠강왕 ‘카네기’의 사무실 벽에 <꿀물에 밀려 황량해진 모래위에 덩그러니 핏개처럼 커다란 나뭇배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밑에는 “반드시 밀물이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라 고 쓰여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의 젊 은 시절 어렵고 지쳐 힘들었을 때, 이 그림을 보

고 힘을 얻게 되었으며, 비전을 품게 되어 성공 하였다고 합니다.

<비전>을 국어사전에서는 “높은 지위나 승진, 영향력, 두각을 얻기 위한 열렬한 욕망”이라고 했고, 「조셉 엡스타인」은 비전을 “성취의 연료”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갖고 승리 합시다.

셋째, 감사하며 삽시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인생의 행복 율환 유입니다.

명예학장 정인찬 박사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원장)

학 장 조재승 박사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해오름신학교 모집학과

1. 학부과정(B,Th, B, A.)

학 과	학제	지 원 자 격
신 학 과	4	고졸 및 동등자격
목지학과	4	디지털대학학위인정
선교학과	4	선교에 뜻이 있는 자
목회학과	2	목회에 뜻이 있는 자

2. 목회대학원 (M,Div, M, A, Th,B)

학 과	학제	지 원 자 격
신학연구과	3	M,Div 과정
치유상담학과	2	신학교 졸업자 및 대졸자
목회연구과	2	M, A 과정
편목과정	1	신학교 및 연구원 졸업자

해오름 예술신학교 (찬양사역의 꿈)

모집학과 및 전공

학부과정	실용음악과	보컬, 신디, 드럼, 기타, 베이스, 작 편곡, 미디, 관악
	찬양사역과	교회음악, 찬양인도, 기악, 성악, 반주
	문화예술과	워십무용, 뮤지컬, 연극, 영화
	방송미디어과	영상, 음향, 조명
신 학 원	찬양목회	찬양인도, 선교예술, 기악
대 학 원	음악신학	실용음악, 교회음악

단기사역자 (2년 수료과정)

실용음악과	보컬, 드럼, 신디,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교회음악과	성악, 지휘, 찬양인도
워십무용과	워십, 힙합, 재즈
뮤지컬 과	연기, 호흡, 발성, 분장, 댄스

* 일주일에 하루 수업 * 개인 레슨과 마스터 클래스
* 실기 위주 교육 * 2년 수료 후 정규과정 편입가능

* On-Line과 Off-Line교육병행 (복수전공 가능)
*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사회복지사 2급 , 유아 보육사 2급)
* 예술선교사, 찬양목사 안수(예술총회)
* 학자금 대출 가능, 수능 무관

목회자를 위한 목요반 정기세미나

목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강의로 설교와 전도, 성경연구를 심층분 석한 내용 으로 목회자들에게 감동함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강의가 진 행된다.

■ 정인찬 박사(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원장)
'성경강해 및 목회학'

■ 이중남 목사(한국성경 본문연구원 원장)
'성경 개념정리설교 및 성경, 전도학 강의'

■ 강환택 목사
'실천전도학(200명 교회에서 3년내 천명 돌파한 실제적인 전도강의)'

■ 오종택 목사(논스쿨 성경연구원 원장)
'장신대 신대원 입시생 7년간 강의'

매주 목요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 실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68번지 4호 센리이즈(해오름)빌딩 6층
전화 031- 413-7744, 019-353-0800
이메일 tangia815@hanmail.net

서울캠퍼스: 010-8322-7744
인천캠퍼스: 016-880-8940
중부캠퍼스: 011-9956-4760 보은율리선교터운(신학교영성수양관)
부산캠퍼스: 010-8856-0675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생명의 요람일 뿐 아니라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ی 계신 가정이며, 하나님이 계신 가정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야 합니다.

가정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족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므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며 더욱 성결하여 집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므로 가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며, 죄를 미워하며 의로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2008년 1월 23일~2월 5일

권 세 능 목사

웨스턴신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졸업
충신대 학교 대학원
말씀사랑운동본부 대표회장
성도교회 담임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나서자”

01월 23일 /찬송49장 성경: 빌3:7-14 제목: 뜻대와 전진

서론: 성도들은 예수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첫째: 예수께 잡힌바 된 것을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둘째:앞에 있는 것을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셋째: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결론: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안일한 신앙 곧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앞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야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01월 24일 /찬송37장 성경: 사6:1-13 제목: 주님의 일꾼

웃시아 왕은 유대 역대 왕들 가운데 현군으로 52년간이나 그 백성을 잘 다스린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때에 정변 애국자 이사야가 성전에 예배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이 하늘의 음악을 들은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위로부터 한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기다릴 수가 없어 주여, 내가 여기 있니다. 나를 보내 주세요. 그는 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01월 25일 /찬송427장 성경: 빌4-13 제목: 능력있는 사람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축복을 기원합니다. 미래에 무슨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일을 당하든지 그것을바로 당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자기의 권력을 과신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인간만능론을 주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오직 할 수 없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록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족의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말입니다.그는복음 전파가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했습니다. 믿음은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말고주 안에서 만능의 인물이 됩시다.

01월 26일 /찬송340장 성경하11:7-11 제목: 믿음과 일상생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전기 불을 켭니다. 기술자 외에는 전기에 관한 모든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전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밝은등불이 되는지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전기 불을 켭니다. 전기의 혜택을 받습니다. 일종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원리를 다 깨닫지는 못하나 그저 조종사를 믿고 먼 여행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먼저 알아야 믿겠습니다.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지식이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지식으로만 살고자 하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점도깨닫게 됩니다.

01월 27일 /찬송377장 성경: 눅11:1-13 제목: 예수의 기도생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 먼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새벽 오하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한 후, 종일 가르치고 병고치고 일하시고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도 먼저 배에 태워 다른 언덕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하루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쉼한 것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꼭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와 일을 꼭 같이함쑤했다는 점입니다.

01월 28일 /찬송330장 성경: 마3:1-6 제목: 마른손의 회복

예수님은 언제든지 안식일에는 일찍 예배당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을듣고 그 오른손을 고치기 위해 회당에 들어왔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보배롭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손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가 왔을 때 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손은 헌신과 봉사의 상징입니다. 우리 가정의 손을 어떤 일과 어떤 봉사를 하니까? 힘 있는 손입니까? 또한 손은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도 이 손을 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야고브와 베드로와 요한 둘이 나야와 바나바에게 약속을 하였으니”라는 말씀처럼 성도의 가까운 교제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러한 손들이 혹시 마르지 않았습니까? 한 분이라도 손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손을내미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주시며 쓸 수 있는 손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01월 29일 /찬송262장성경: 잠27:1 제목: 너는 내일일을지랑하지 말라

옛날 헬라나라에 데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주권자 이턴 알카이아스는 어느 날 저녁 큰 연회를 배설하고 그 나라의 귀족과 귀한 손님들을 많이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많은 노래하고춤추는 여자들이대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에 어떤 분이 편지가 들은 봉투 하나를 그 왕에게 드려니 ‘오늘은 항락의 저녁이니 사무는 내일 보아야지’하며 그 봉투를 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왕은 조금 후에 여자 댄서로 변장하였던 모반자에 의하여 침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이러한 음모를 알리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실례이나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경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할



수 있는일을 미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에 꼭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내일! 하며미루다가 일생을 허송세월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01월 30일 /찬송401장성경: 뎬전1:12-20 제목: 인생향로

사도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때에 그레대 섬 근방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의 뢃던 배가 열나를 동인이나 지중해에 표류하다가 마지막 밀레섬 앞에서 파선이 되고 겨우 인명만 구조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일은 옛날 뿐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밑은 파선의 잔물로서 덮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선의 잔해로 항해가 곤란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로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행선에도 물론목적이 있습니다. 곧 하늘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는 배를 탄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작은 강은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다는건널 수 없습니다. 먼 대양을 건너가는 때는 여러 돛을 달아바람의 힘을빌려 대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항해에 가장 필요한 작은 기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침반입니다. 이것으로 배가 옳은 방향으로만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항로를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01월 31일 /찬송456장성경: 마7:7-20 제목: 두길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누가앞에 이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중간노선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인생 항로는 통로입니다. 한번 가고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망하고 맙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일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 인격, 성품, 생활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합니다. 또 번사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좁은길입니다.

바로 극기와 절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이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도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02월 1일 /찬송360장 성경: 눅19:1-10 제목: 회개와 보상

삭개오는 여기 기록한 대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합니다. 그때에 세리가 일반 국민에게 헌대를 받은 것은 로마인 아래에서 관리가 되어 유대인의 돈을 착취하여 외국 정권에 바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볼 때 반역자로,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배교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세리는 죄인이라고 신약에 나타나는데 거의 창녀와 같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나까 그런 자리에서 돈을 모은 만큼 불의한 재물이 많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는 참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죄를깨닫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공포심만으로는 회개는 아닙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여기 삭개오가 질뎀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내 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명예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든지 갚아 주려는 참된 회개입니다.

02월 2일 /찬송28장 성경: 창12:1-3 제목: 복의근원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원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옛날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의 믿음의 자손은하늘의 별과같이 많아졌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생활은 부름을 듣고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아브라함은 일생토록 순례자의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떠났습니다. 히브리 저자의 말대로 사실은 갈 바를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우리 가정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환경과 변하는 시대에서 어디서나 변치 않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순례자이지만 우리 생의 목표는 현세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02월 3일 /찬송258장 성경: 마4:12-25 제목: 사람을 낚는 어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만나서 부르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데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그하나하나가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성별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어부를 만들어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그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큰 수확을 가져온 것은 개인전도 방법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 것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개인 전도를 했고이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일단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방법을 배우고 경원을 배우고 기회를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역시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정은 전도하는 가정으로일어나야 되겠습니다.

02월 4일 /찬송487장 성경하12:1-13 제목: 벗어버리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 및 가치를 말함으로써 주십니다. 첫째는벗어 버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열매이기 쉬운 죄를벗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인내로써 경주를 달려라고 하였습니다. 꾸준히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말고계속해서 달려라고 하는말입니다. 셋째는 “신앙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도를 항상바라보면서 “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가운데 첫째 교훈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불필요한 중량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경주장에 나가는 선수는 체중조절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옷, 가벼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꼭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모든 것은 벗어 버려라”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친구, 서적, 음악이러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 건강하게 잘 달리는 것 신앙의 경주자가되어야겠습니다.

02월 5일 /찬송543장 성경: 골3:1-17 제목: 사람과 그 생각

시편에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목상할 때에 화가발하니” 즉 불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깊이 또한 오래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국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도 그렇고 나쁜 생각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엘리야는 호렙 산에서 깊이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죽어야 합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사 할 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그런 까닭입니다.

성경에서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

(돌의 신비 벤전 2:4~10절)

전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요 5:39절

우리가 성경에서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마 3:7~9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왕상 18:38~39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활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하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활었다고 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여호와와 불을 말한다. 여호와와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과 돌과 물을 활었다고 했다.

- 1) 번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열기를 태웠다는 것이요,
- 2)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형식과 외식을 태웠다는 것이다.
- 3) 돌을 태웠다는 것은? 고집을 태웠다는 것이요.
- 4) 흙을 태웠다는 것은? 욕을 태워야 한다는 것이요,
- 5) 도랑의 물을 태웠다는 것은? 더러운 사상과 생각을 태웠다는 것이다. 더러운 생각과 생각을 활은지라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라고 했다.

첫째 돌의 특징을 알자

- 1) 돌은 무겁다고 했다. 잠 27:3절
- 2) 돌은 단단하다고 했다. 욥 41:24
- 3) 돌은 혼하다고 했다. 왕상 10:27
- 4) 각종 보석이 돌 속에 들어 있음을 가리킨다. 욥 28:2, 6, 10절
- 5) 돌은 돌을 닦게 한다고 했다. 욥 14:19

둘째 돌과 예수를 생각하자

- 1)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 벤전 2:4절
- 2)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고 했다. 사 28:16
 - ※ 행 4:11~12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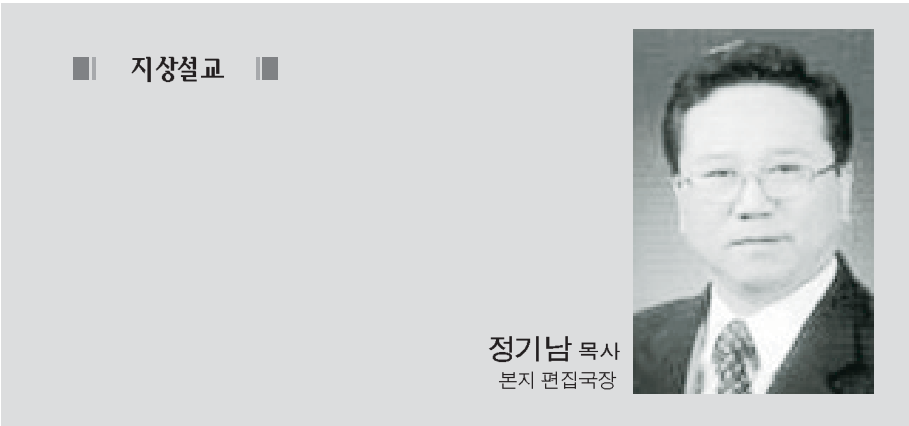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 3)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출 17:6 고전 10:4
- 4)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민 20:7
- 여기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재림 예수), 초림 예수는 죽으러 오신 예수인고로 내려쳐야 한다(죽어야) 되지만 재림 예수는 큰 돌로서 명하여야 한다. 승리의 말씀을 명하라! 반석에게 명하는 것은 모세(율법)로는 불가능하다. 재림 예수란 돌은 삼군들은 들지(풀 수 없다) 못한다. 창 29:1~8절
- 5) 베게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움 창 28:11~20절 여기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돌을 세우고라고 했다.

- ※ 수 4:1~9절 여기서 열 두 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열 두 순교자들, 제자들을 가리킨다. 수 4:15~24절 여기서 우리는 길갈 언덕에 세운 열두 돌은(부활하신 예수님과 열두 부활제자를 말한다.
- 6) 아골 골짜기의 돌들의 전쟁 수 7:20~26절
- ※ 호 2:14~15 아골골짜기(괴로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다.
- 7) 단 2:31~35절 여기서 쓰인 돌이 등장하여 다 부숴뜨린다고 했는데 쓰인 돌은 심판의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돌에 부딪히면 멸망난다. 벤전 2:6~8절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부딪히는 돌로 등장한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이 돌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박살이 난다.

셋째 이 돌이 쓰이는 곳을 알자

- 1) 요 2:6절 물을 담는 돌 항아리로 쓰임 받았다. 돌 항아리! 본래 항아리는 질그릇을 구워서 만드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는 돌로 만든 항아리라고 했다. 돌은 말씀이요, 돌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참된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이다. 참고로 고후 4: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다. 여기서 보배는 복음이며 진리요 예수다. 그리고 질그릇은 육이요, 연약한 우리를 말한다. 사 7:19~20절에서 항아리를 부수고 죄우에 횃불을 들고 그랬다. 이 말씀에서도 육을 초월하지 않고는 육을 죽이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가리킨다.
- 2) 창 29:1~8절 여기서 큰 돌로 우물을 뚫어 두었고, 양떼를 먹일 때는 돌을 옮겨



정기남 목사
본지 편집국장

야한다. 여기 우물을 뚫는 큰 돌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 세페의 삼군 목자들은 이를 들지 않는다. 삼상 6:7~15절에서 벤세메스로 달려가는 두 암소가 등장한다. 여기서 두 암소는 말세에 순교를 보여주는 두 증인에 대한 그림자요, 또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준다.

※ 아 4:12~15절 이 말씀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도들, 신부 단장한 성도들을 가리킵시오, 잠근 동산은? 신부 방, 신방, 신랑만이 출입하는 곳, 주인만이 출입하는 곳을 말한다. 은혜 시대에는 교회가 잠근 동산이지만, 말세에는 예비처가 잠근 동산인 것이다. 소알 성, 노아방주, 고센 땅, 도파성이 잠근 동산이요, 뚫은 우물이요, 봉한 샘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깨끗한 마음, 티끌이나 짐승이 먹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분리된 신앙을 의미한다. 오직 임금만이 동산 주인만이 먹도록 준비된 우물을 뜻합니다. 특히 신부를 봉한 샘이라고 한 것은 신부의 헌신과 봉사는 신랑에게만 하고 타인에게 하지 않음을 뜻한다. 골 3: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음이라"고 했다. 네게서 나는 것은(웁튼다) 썩는다. 나타내다. 성도(신부의) 율법은 생활, 살아 있는 신앙을 뜻한다.

3) 수 5:2~3절에 할례 도구가 나온다 할례도구는 부싯돌 같다. 할례는 거룩한 행위이다. 신앙의 할례는 마음에, 귀에, 입에 행합니다. 칼로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4) 창 28:10~22절에서 보면 베개가 나온다. 11절에 한 돌, 이는 특별한 돌인데 취하여 베게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이는 십자가에 죽으사 무덤에 장사됨을 보여준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나온다. 이

는 사닥다리 계시를 보여준다. ※ 요 1:51절 인자 위에 예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다. 16절 아람이 잠이 깨어 가되=> 비로소 영적인 자가 되어 가되, 18절 아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 새벽기도,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 세운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 위에 기를 붓고 => 성령을 받아, 그런 뜻입니다.

5) 출 24:12절에서 서판이란 의미는 기록된 돌판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613개나 된다. 성경에서 율법, 율법은? 히 10: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다.

6) 골리앗을 잡는 물매 돌이 있다. 삼상 17:49 물매돌이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긴다는 뜻이다.

7) 막 5:5절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돌이 나온다. 밤낮 무덤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을 들어 자신의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고 했다. 사 28:16절에 견고한 기초 돌을 믿는 자는 급할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자귀신 들린 자는 그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

다시 ※ 아 4:13절을 보면 '석류나무'가 등장하는데 석류나무 열매는 씨가 많다. 이는 알찬 성도들을 가리키며, 알곡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석류나무 열매 속은 붉습니다.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말하고, 백색은 순결한 사랑과 회개한 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매우 귀한 과실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성들이 맺은 열매를 가리킨다. 갈 5:22~23절

그리고 아 4:13절에서 '고별화'는 봉선화의 종류에 속하는데 향기가 아주 좋다. 물감으로도 쓰인다. 봉선화로 손톱에 물

들이듯이 물감으로 사용된다. 이는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로 볼수 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

또한 나도초는 향료를 말하는데 향수류 중에서 최고급(불란서, 나뉘, 성도는 최고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또한 14절에서 변홍화가 나오는데 이는 늦가을에 담자색으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을 가리키는데 이는 늦은 비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됨을 뜻한다. 다시 14절에서 '창포'가 나오는데 창포 역시 향기롭다. 이는 원래 인도 산인데 레바논 골짜기에 많이 번식되어 있는 향기 좋은 성유 (귀중한 기름)이다.

다음으로 14절에 '게수'가 나오는데 이는 고대로부터 향품으로 음식으로 약제로 특히 보약에 첨가되는 향품으로서 생명의 활력소를 뜻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유향목'은 성도들의 각양 각색의 기도를 뜻한다. '물약'은? 방부제 (소금의 역할) 십자가의 고통으로 썩은 세상을 썩지(선지자) 않게 함을 뜻한다. 그리고 14절에 '침향'이란? 인도 산 최고급 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다. 모든 귀한 향품이요, 성도들의 울은 행실, 믿음과 행위, 기도와 봉사를 뜻하고 있다.

또한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이는 세상과 분리된 교회, 심령을 말해준다.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요' 했는데 이는 살아 있는 성스러운 교회, 거룩하신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라고 했는데 이는? 깨끗하고 차원 높은 산에서, 높은 차원의 산, 백향목을 배출한 산에서 흐르는 시내(말씀의 강단을 의미 한다. 할렐루야!

넷째 돌들이 주는 상징적 의미

- 1) 마 16:18절에서(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나오는데 이는 반석은 예수요 교회를 가리킨다.
- 2) 벤전 2:5절에서 변함없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말해준다.
- 3) 삼상 25:37~38에서 돌이 주는 상징적 의미에서 저주 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
- 4) 마 24:2절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성전 상을 말해준다.
- 5) 욥 15:28절 '폐허가 되게 한다'(또 그는 황폐한 성읍과 아무도 살지 않는 돌무더기가 될 집에 거하는니라)고 했다.
- 6) 수 7:10~12절에서 '하나님으로 큰 진노를 받은 무감각한 마음'이 된다.
- 7) 겔 36:26절 [새 영으로 회개한 돌 같은 마음]을 말한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고

했다.

다섯째 돌에 맞아 죽는 범죄

- 1) 레 20:27절에 『무당(신접한 자, 박수)』
- 2) 레 24:10~16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한 자』 돌에 맞아 죽는다.
- 3) 민 15:32~36 『안식일에 나무한 자』
- 4) 신 13:6~11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
- 5) 신 17:2·7 『우상 숭배한 자』
- 6) 신 22:23~24 『약혼하고 다른 사람과 통간한 자』
- 7) 수 7:22-26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훔친 자』
- 여기서 은은 "구속, 속전"외투는 "세마포 겹옷" 금덩이는 "최고의 믿음"을 말한다.

여섯째 돌에 대한 주의 사항

- 1) 마 3:8~9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 2) 마 4:1~4 『아무리 배가 고프도 돌을 빵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다.
- 3) 마 4:5~6 『하나님이 받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했다.
- 4) 마 13:5-6 『말씀을 돌밭에 받지 말라』는 것이다.
- 5) 욥 22:24 『오필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쌓는 자』
- 6) 욥 28:6 『사금과 남보석(사파이어)이 돌에 있음을 깨닫는 자』
- 7) 욥 41:24~34절에서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 일곱째 돌의 결론
- 1) 요 2:6~11 『돌 항아리 여섯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한다.』
- 2) 민 20:10~12 『두번째 반석을 어리석게 치지 말라.』
- 3) 창 29:1~11 『든 돌을 번쩍 들고 재림의 예수를 전함시다.』
- 4) 눅 19:40~44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우리가 외쳐야 한다.』
- 5) 단 2:34~35 『쓰인 돌』(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 6) 마 24:41 『두 여인이 매를 갈 때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받았다. 두 여인이 매를 가는 것, 두 여인이 비밀은 겔 23:1~4절에서 감음한 예루살렘교회와 사마리아교회를 뜻한다.
- 7) 겔 18:21~24절 『큰 맺돌 같은 돌을 조심해야 한다』 아멘.

믿음의 모습에 따르는
육체의 죽음과 연결된

요한계시록 강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장소가 끝나고, 갈보리인데 계시록 11장 8절에 나오는 또 다른 십자가 장소인 애굽과 소돔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을 읽어도 의문투성이를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종말론을 외쳤던 내용으로 인해 속았다면 올바르게 정리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후회하지않으실 것입니다. 지상종말론만 되어 있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학서적과 주석 및 강해를 봐도 얻을 수 없는 강의에 매료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이상아릇하거나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열쇠인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깨닫게 되는 이번 세미나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최:

기독교학술연구원

일 시:

2008년 2월 18일(월) ~ 21(목) 매일 오전 10:30 ~ 오후 4:30

강 사:

류 현 수 목사(생명의강 제자훈련원 원장)
이 중 남 목사(한국성경 본문연구원 원장)

후 원:

생명의강제자훈련원(원장: 류현수 목사),
남북한오지선교회(미국법인 회장 최호일 목사)
영광기업(사장 정학영 장로)

등록 비:

일십만원(100,000) ※ 중식비는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하는 천국까지 세워놓은 성경 시리즈 5권 증정)

장 소:

1월말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의 수를 따라 장소를 결정함

입금계좌:

국민은행 580901-01-015856 윤옥선 계좌로 입금하시고 꼭 연락요망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실명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1월 7일 ‘2008년도 신년 감사예배와 하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이하 웨신)는 지난 1월 7일(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파노라마뷔페(구 우미관)에서 2008년도 신년 감사예배와 하례회를 가졌다.

총회장 장창수 목사는 전국에서 부부 동반하여 모인 총회원들에게 희망찬 새해 대망의 새해 부흥하는 한 해가 되자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했다.

장 총회장은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운 난관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하고 총회 합병에 따른 불신과 오해로 인해 일부 이탈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로 이를 극복하고 이제 더 이상 갈등과 혼돈 속에 머물거리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며 손을 맞잡고 미래 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을 역설했다.

부총회장 윤귀환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부총회장 장영기 목사의 기도 경기노회장 이홍규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장창수 목사가 “성공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가진 특별기도는 한서노회장 이재갑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서울남노회 장영광 목사가 총회, 노회, 전국 지교회를 위하여, 서부노회장 전동하 목사가 웨신대학교와 전국 인준신학교를 위하여 각각 기도한 후 증경회장 정재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신년하례회는 총무 장승현 목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회의록서기 김승년 목사가 오찬기도를 총회장 및 총회임원, 증경총회장 등이 축하케이크 커팅식을 가졌으며 기념촬영이 있는 후 모든 행사를 마쳤다.



말씀을 듣는 총회원들



설교를 하는 총회장 장창수 목사



총회 장승현총무와 임원들



총회 임원들



총회장 장창수목사와 임원들과 케이크축복을 하고 있다.



화기애매한 신년인사를 나누는 총회원들



총회장 장창수목사 부총회장 장영기목사



총회장 장창수목사 정창갑 목사

근 하 신 년



총회장 장창수 목사



부총회장 윤귀환 목사



총회장 장영기 목사



총무 장승현 목사

웨신총회 임원과 총회원 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장창수목사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42-105 (201호) 전화 02-835-2607



백로가둥지에 예쁜 아가들을 부화시켰다. 오늘 하나님의 둥지 안에서 새롭게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두란노 사진 장가계-일경)



창경궁의 원앙새

천연기념물 제327호 (지정일 1982.11.04)

원앙은 우리나라와 중국, 소련, 우수리,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암컷·수컷이 항상 함께 다닌다고 하여, 화목하고 늘 동반하는 부부를 빗대어 원앙이라고 한다.

원앙의 몸길이는 보통 43㎝정도이다. 수컷이 매우 아름다운데, 눈 둘레는 흰색, 뒷머리깃과 뒷가슴은 밤색, 등은 청록색을 띠고, 가슴에 2개의 세로줄무늬가 있다. 또 노란 옆구리와 위로 올라간 선명한 오렌지색의 부채형 날개깃을 가지고 있다. 암컷은 몸 전체가 갈색을 띤 회색이며, 흰 점무늬가 있다. 배는 흰색을 띤다.

삼삼이 울창한 산골짜기 계곡에서 생활하는데 겨울에는 저수지, 호수와 늪, 해변, 냇가에서 무리로 겨울을 난다. 주로 활엽수 나무구멍에서 번식하는데, 오리류 중 중국의 호사비오리와 같이 나무구멍에 번식하는 유일한 종이다. 한 배에 7~12개의 옅은황갈색 알을 낳고, 28~30일이면 부화된다. 풀씨, 나무열매, 달팽이류, 민물고기 등을 먹는다.

원앙은 세계적으로 20,000~30,000여 마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새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진귀한 새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시각장애 이기며 “세상의 빛으로...”

대신 남서울노회장에 조원제 목사 · 통합 서울노회장에 김선태 목사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 일반인도 힘든 대형 교단의 노회장에 잇따라 당선됐다.

회계의 주인공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남서울노회 조원제(52·복천교회)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노회 김선태(66·실로암 안과병원장) 목사다.

김 목사는 지난 8월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 아시아상을 수상한 인물. 지난 25~26일 서울 신문로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173회 가을 노회에서 앞으로 1년간 서울노회를 이끌 수장으로 선출됐다. 서울노회에는 107개 교회, 20여개의

선교단체가 있으며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교회와 500여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돼 있다.

김 목사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다. 6·25 때 폭탄 파편에 맞아 실명한 그는 숭실대와 장신대, 미국 시카고 매코믹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한평생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시각장애인 1만5000여명에게 개인수술을 실시해 빛을 찾아주었고, 시각장애 대학생과 신학생 9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 목사는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1985년 대통령 표창과 1998년 호암재단으로부터 호암사회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 목사는 “장애인을 편향적으로 보지 않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고맙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노회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남한동 우림교회에서 열린 정기 노회에서 60교회 목회자와 장로 대의원 144명을 대표하는 노회장에 선출됐다. 후진선 인근인 경기도 연천에 살던 조 목사는 11살 때 지폐를 접다가 터지는 바람에 시력을 잃고 오른손마저 절단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노력한 끝에 서울 청파동 대한신학교와 대신연구원을 졸업했고 꿈에 그리던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 방배동에서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200여명과 함께 복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 목사는 “올해 유독 노회 행사가 많아 시각장애인 노회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았는데 다른 목회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Global Medical Campaign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www.worldagape.net

전세계 고통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월드아가페는?

제세계 아동구호단체인 월드아가페에서는 지구촌 곳곳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고자 Global Medical Campaign을 진행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움을 주실 기업, 단체, 교회는 연락주시길바랍니다.

* 후원계좌:우리은행 771-131281-01-222(예금주:한국사랑발회)

[문의전화 02 2612 1331]

※월드아가페에서는 제3세계 아동을 돕는 사랑나눔콘서트 를전국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공연 및 접수 02-2683-9300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135-65 www.worldagape.net

여러분의작은도움이 생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월드아가페 주요사업

〈국내〉

- 1:1 결연
- 무의탁아동공동체(교아원) 운영

〈미국〉

- 홈리스 사역
- 홀리스 교회
- 무료급식
- 긴급구호

〈방글라데시〉

- 의료, 교아원, 교육지원사업

〈중국〉

- 불우청소년 학업지원
- 양로원 운영
- 빈곤가정지원 (1:1 지원)

〈인도〉

- 교아원, 교육지원사업

〈필리핀〉

- 교아원, 양로원, 장애인지원사업

〈케냐〉

- 지역개발사업

〈캄보디아〉

- 교아원 그룹홈운영

수원 흰돌산기도원에가면 ‘영적대변혁의 기회’

동계성회 12월 31일부터 두 달간 “2008년 다시 시작되는 위대한 축복”

연령별 영적 성장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목회자·선교사·성도 동참

‘10년의 믿음을 앞 당긴다’라는 슬로건으로 22년을 한결 같이 진행해온 연세중앙교회 선교부주최 흰돌산수양관 동계성회가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개최된다.

12월 31일부터 열리는 신년축복 대성회를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진행될 이번 동계성회는 전국의 목회자와 사모, 직분자,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일반성도 등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적 규모의 연세중앙교회 대성전을 건축 봉헌하였으며, ‘예수생애부흥사회’ 총재로 추대돼 한국교계에 초대교회 성령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며 국내외 각종 연합성회를 인도하여 세계영적각성 운동을 펼치고 있는 윤석전 목사가 단독 강사로 나선다.

대규모 첨단시설 완비

▲ **초교파·세계적인 성회** = 흰돌산수양관(원장 윤석전 목사)은 수려한 조경과 쾌적한 환경속에 목양관 신축으로 6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최첨단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국내외 최적의 조건을 갖춘 수양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속적인 시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회 참가자들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윤석전 목사의 능력 있는 말씀선포로 인해 매년 성회 참석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2008 동계성회도 이미 국내외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이 참석을 요청, 영적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를 성령과 함께 출발

▲ **신년축복대성회** = 올해도 어김없이 성도들이 전세계 각처에서 가족 단위로 몰려들어 영육 간에 결박된 각종 문제와 질병의 역사에서 해방되고 치유 받는 등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신년축복성회가 2008년 1월 1일 열림으로 동계성회의 첫 출발을 시작한다. 묵숨보다 큰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살때까지 하는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복을 전하는 일에 삶의 초점을 두며 2008년을 알차게 주님의 일로 채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속칭 ‘짱’이 전교상위권 모범생으로

▲ **초교파중고등부성회** = 신년축복대성회에 이어 중고등부성회가 1, 2차로 나누어 열린다(1월 7~10일, 1월 21~24일). 단 한 번의 성회 참가만으로 속칭 ‘짱’인 비행 청소년들이 전교 상위권의 모범생으로 바뀌고 신학교에 진학해 자신과 같은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부모에 대한 이유 없는 불순종과 반항, 흡연, 음주, 학교폭력, 성(性) 정체성의 혼란, 게임, 음란물 등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가치관을 상실한 채 브레이크 없이 방종으로 질주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 부모, 교사, 사회 그 누구도 해볼 수 없던 청소년들이 3차 4일간의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압도당하고 통회 자복하며 눈물로 잘못된 과거를 정산하는 충격적인 결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마저 뜨겁게 한다.

깨달음 넘어 신앙 실천하는 청년

▲ **초교파청년·대학연합성회** =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젊은이들의 삶을 애 통하는 심정과 눈물의 회개로 바뀌 진정한 삶의 비전을 발견해 인생목표를 수정하게 하는 초교파 전국청년·대학연합성회가 1월 14일~17일까지 개최된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쓰실 최고의 고품격, 고 할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실한 권고를 공감한 전국의 수천 명의 청년들은 성령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교회 부흥 성장의 주역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주신 영적 권리 회복

▲ **설날축복성회** = 2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설날축복대성회가 개최된다. 조상승

배리는 미명 아래 수천만이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시기에 초교파적으로 수양관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우상숭배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자유와 건강, 이적과 능력, 권세 등 엄청난 영육간의 부유한 권세들을 실질적으로 누릴 축복대성회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직분자

▲ **초교파직분자세미나** = 2월 11일~14일까지 열리는 직분자 세미나는 하나님과 목회자, 교회를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하던 직분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직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충성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목회 사역을 활자하게 섬기는 직분자로 거듭나서 교회의 중직으로 변화되는 세미나다.

은혜 받고 변화된 직분자로 인해 목회자들도 ‘새로운 목회의 장’이 열렸다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직분자들의 필수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예수 생애 재현하는 능력의 목회

▲ **초교파목회자부부영적세미나** = 37차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 2월 23일부터 4일간에 걸쳐 담임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강사 윤석전 목사의 성령충만한 실제적 목회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심탄화하게 목회자들의 영적 실상을 지적하여 인본주의 목회에서 신본주의 목회로 이끈다. 또한 이론과 현실을 찾아오는 목회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목회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주님 심정으로 영혼구원을 열망하는 목회자로 변화되는 귀한 세미나로 영적 역량을 잃어버리고 고민 하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능력과 사명감을 되찾아주고 있다.

각 교회 동계수련회로 활용

▲ 매년 개인별 참석뿐 아니라 단체 참여자들이 늘고 있어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강사 | 윤석전 목사

간사총무 연세중앙교회 담임

성회등록비용

1. 선 등록 : 1인 50,000원(각 성회 7일전까지 등록비용 100%인출해드립니다.)
 2. 당일등록 : 1인 55,000원
※ 차량운임 / 흰돌산수양관입구(명하리)→수양관(월요일 10시~오후 8시)
(단, 목회자 세미나는 참가비 일체 무료)
※ 준비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
- ▶ 수원흰돌산수양관 찾아 오시는길
http://hindol.yonse.or.kr 참고하십시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24 Tel. 031)227-3111

주최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수원흰돌산수양관



2008 동계성회

Suwon Hindolsan Retreat Center
2008 Winter Conference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귀한 은혜의
현장에당신을 초대합니다!”



- 12/31(월)~1/3(목) 초교파신년 축복대성회
- 1/7(월)~10(목) 제51차초교파중·고등부동계성회
- 1/14(월)~17(목) 초교파청년·대학연합 동계성회
- 1/21(월)~24(목) 제52차초교파중·고등부동계성회
- 2/4(월)~8(금) 초교파설날 축복대성회
- 2/11(월)~14(목) 제23차초교파직분자(제직)세미나
- 2/25(월)~28(목) 제37차초교파목회자 부부영적세미나



새에덴교회 예배모습

기도와 영혼구원 설교로

‘새 에덴교회’부흥성장

분당 신도시에 새성전...송구영신예배와 신년축복성회 ‘은혜충만’

새에덴교회는 2007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 이어 2008년 1월 1일부터 3일(목)저녁예배까지 신년축복성회를 가졌다. 성황리에 집회를 마치고 내려온 소 목사는 신년초 찾아온 기자를 너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사모는 손수 차와 다과를 준비해 대접해 주었으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언론에 대해 격려와 함께 축복을 기원했다.



담임 소강석 목사

3M(맨손, 맨몸, 맨땅) 이노베이션

소강석牧사는 3M(맨손, 맨몸, 맨땅)으로 송파구 가락동에서 개척을 한다. 가락동은 재개발 된 지가 얼마 안 된 지역이었고 성남 쪽까지 교구화 시킬 수 있는 비전이 보였던 최적의 장소였다. 가락동에서의 개척은 훗날 가까운 신도시 분당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가락동을 개척지역으로 선정하고 나서 곧바로 착수한 것이 지역 조사였다. 그 지역에 맞는 목회전략을 수립하고 설교지를 돌리고 지역사회의 유지급이나 지역 여운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가락항우회, 부녀회, 통장, 미장원, 부동산 등을 만나 의식구조 및 종교 실태와 성장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지역이 요구하는 교회 상을 심어주어 좋은 소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상전략을 세운다. 드디어 3M이노베이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취들의 행진과 100일 작정기도

한 명의 멘토나 자원자도 없이 시작한 가락동 개척교회 시절은 정말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1000만원 보증금에 48만원 월세로 지하 23평짜리 건물을 계약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락동 시절은 지하 건물이었기에 강단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다. 큰 왕쥐 한 마리가 방 한가운데를 횡단하면 새끼들이 그 뒤를 짹짹거리며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장엄한 취들의 행진(?)이었다.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쥐들만 구경을 하기도 하였다. 설교하다 말고 쥐들을 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우물쭈물 하다보니 준비한 설교도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개척교회 시절은 눈물겹고 처절하였다. 낮 예배는 그래도 몇 사람이 모이지만 밤 예배 때는 사람들이 가 버려서 정금성 권사와 배정숙 사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던 날이 많았다. 너무도 어색하고 힘든 순간이었다. 소강석牧사는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성경 강단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100일 작정기도를 했다. “주여! 사람 좀 많이 보내주소서. 제 생명을 걸고 목회하며 피를 토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겠

사오니, 주여 제발 사람을 보내어 주소서...”

준비·간접·직접 전도 ‘3단계전략’

가락동 개척시절은 무작정 순회방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전도전략을 세워서 준비전도, 간접전도, 직접전도 등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에 새 에덴교회의 소문을 긍정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장년 성도가 50~60명 되었을 때는 약 200여 명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벌였다. 전도요원에게는 교회, 목사, 예수님 자랑 30가지를 써서 외우는 훈련을 시켰다. 이미 교회 소문이 잘 나 있었기에 잘 훈련된 전도요원들이 전도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래서 새 에덴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고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3단계 전도전략은 새 에덴교회 부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력을 다한 총동원 전도

새 에덴교회의 부흥의 소식은 가락동 뿐 아니라



새에덴교회 전경

송파구 전체에 바람처럼 불기 시작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전도의 기회를 위해서 1차로 1500명을 목표로 한 총동원주일을 계획한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상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총동원은 큰 보람이요 부담이었으나 생업을 포기하 다시피 하며 교회 전도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 자비를 들어서 전도지를 제작하고 볼펜을 만들어서 배포하며 총동원주일을 알리는 헌신자들로 인하여 1500명을 계획하였던 목표를 넘어 2500명 이상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개척한지 1년이 조금 남았을 때의 일이다. 총동원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며 감격하였다. 총동원주일은 대성공이었으며, 새 에덴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성장의 한계를 넘어 분당으로

가락동에 교회를 개척한 지 4년째가 되었을 때 예배당도 25명에서 120명으로 옮겨졌고 뜨거운 총동원 전도행사도 두 번이나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이상 도약을 하지 못하고 정지 상태에 놓였다. 300명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상가교회를 탈피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교회성장을 위해서라도 교회건축 계획을 결단하였다.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분당 신도시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분당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부지를 구입하게 된다.

새 에덴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서서히 동터오는 순간이었다. 가락동 시절의 혹독하고 힘겨웠던 시간은 곧 분당에서 이뤄질 폭발적인 부흥의 전주곡이 되었다.



2008년 1월 신년축복성회에서 통성으로 기도들

“기도의 불길을 온 세계로”

공주 평화의동산 2008년 1월 한달 신년축복대성회

“기도의 불길을 온 세계로”라는 주제아래 평화의동산에서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31일(목)까지 신년축복대성회를 갖는다. 전년도 12월 31일~ 2008년 1월 3일(목)까지 1차 집회를 원장 피종진 목사가 인도하고 1월 7일(월)~10일(목)은 이호훈 목사, 1월 14일~17일(목)은 고충진 목사, 1월 21일~ 24일(목)은 김우경 목사, 1월 24일~ 31일(목)은 오관석 목사들이 각각 강사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3일까지 집회를 인도한 원장 피종진 목사는 평화의동산을 찾아온 많은 성도들과 사모들, 또는 목회자들을 격려와 위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2008년도는 각자 목회 현장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며 말씀을 전하면서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와 찬양으로 평화의 동산이 흑끈 달아올랐다.



평화의동산 주기도문비



평화의동산에 세워진 타임캡슐



기도운동본부 신년금식기도회

3일간 하루 9시간씩 구국 위해 특별기도 차기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도 참여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엄신형 목사(증흥교회)가 신년 벽두부터 금식기도회에 참여 3일간 하루 9시간씩 한국교회 대부분을 위해 특별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도운동본부(총재 엄신형 목사)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신성수양관(김동근 장로)에서 2008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신년 3일 축복특별 축복금식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금식 기도회는 “기도하여 응답받고 신년을 보장받자”란 주제아래 한국교회의 비전과 부흥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하루 3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족복음화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총재 엄신형목사는 “신년 벽두에 이 나라와 온 민족을 대신하고, 교계와 개 교회 및 가정과 온 세계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금식하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특별히 역사해주시길 확신한다”고 말했다.

엄 목사는 이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예에 힘쓰기로 했다”면서 “우리 모두가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지구촌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으로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대부분 100년을 맞아 교회의 화합과 일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도회와 관련,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과 새 대통령을 위하여 △북핵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평화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안정과 번영과 경제 대부분을 위하여 △교계의 연합과 새해 목회 계획과 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염려하는 문제, 소원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기도회에 참여한 한 목회자는 “2008년에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대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서 “금식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 목회자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면서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성수양관은 이번 금식기도회를 위해 무료로 숙식 및 휴리닝 등 일체를 제공했으며, 총재인 엄신형목사는 구급 2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된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웃 향해 사랑 나누는 한해로”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신년하례 감사예배

14일 인천총회신학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준원 목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인천총회신학교 대강당에서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갖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다짐했다.

이날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가진 1부 예배는 상임회장 최상열 목사의 기도, 회장단의 이용주 목사의 성경봉독, 양지영 집사의 특송, 고문 조용목 목사의 설교, 서현철 목사(신학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의 국가와 민족복음화, 본회선교를 위하여 특별기도, 대표회장 이준원 목사의 신년사, 고문 배기은 목사, 김태운 목사(한국성경공회 사무총장)의 격려사,

방희곤 목사(예장합동총신측 총회총회장), 전태균 목사(미국남가주목사회 고문)의 축사, 김용도 목사의 인사 및 광고, 고문 최한용 목사의 축도, 2부 교제의 시간은 김병곤 목사(예장합동총신측 총회총무)의 진행으로 기념촬영, 오찬, 식사대회를 가진 후 제 13차 한국기독교교단부흥사총연합회 총회를 가졌다.

대통령당선자 위한 특별기도

한기총협 신년하례회 및 기도회

한국기독교교단총협의회(대표회장 지용운 목사)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연회에서 신년하례회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와 대통령당선자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본회 대표회장 지용운 목사(예장합동총회장)의 사회로 가진 1부 예배는 오철성 목사(문화위원장, 예장합동정신총회장)의 기도, 김창일 목사(이대위부위원장, 예장연합부총회장)의 성경봉독, 나은숙 선교사(에페소다휴양원 원장, 김영숙 사모(성민대학교 사회복지학교수)의 찬양, 예영수 박사가 설교했다. 이어

박병호 목사(공동회장, 예장개혁연합총회장)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이동규 목사(공동회장, 예장합동경신총회장)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를 위하여, 박석구 목사(세계기독교선교부흥사회 회장)가 나라와 민족, 위정자, 지도자를 위해, 임화영 목사(공동회장, 국제로고스선교회 총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권영애 목사(이대위원, 인천길교회)가 본회와 가평단체를 위하여 각각 기도한 후 김원식 목사(이사장, 한리교목문화재단)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2부 정상문 목사의 사회로 가진 축하순서는 복음가수 김중훈의 찬



양, 고창곤 목사(예장대신총회장, 영락교회), 려용덕 목사(한국교회신문 발행인), 강준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의 격려사, 최옥석 목사(세계기도총회장, 한기본대표회장), 백성기 목사(상임회장, 예장개신총회장), 홍성선 목사(공동회장, 세계선교사

연합총회장)의 축사, 조성자 목사(이대위원, 하늘씨앗선교회장, 민족시인의 축사, 김동석 목사(공동회장, 한국기독교법률협회 회장)의 인사 및 광고, 3부 만찬은 정희열 목사이대위원, 전주새생명교회)의 만찬기도로 천교의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해되자”

예장연 신년하례 대표회장 취임예배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김광본 목사)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법안대표 이사, 임원, 신임교단장 취임예배를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해가 되자는 다짐을 했다.

이날 사무총장 이광용 목사의 사회로 가진 1부 예배는 상임회장 강재원 목사의 대표기도, 총무 최래승

목사의 성경봉독, 한돌위십선교단(단장 이월형 목사의 특송, 기독교TV방송(진)이사장 김준규 목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설교, 상임회장이 선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가진 특별기도는 자문위원 김원오 목사가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예장파어선부총회장 김원식 목사가 국가지도자와 경제부흥을 위하여, 예장합동경신총회장 이강익 목사가 한국교회 정체성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자문위원 경원수 목사가 예장연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한기총 총무 최희범 목사, 상임회장 이종택 목사,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준오 목사의 축사, 상임회장 선우호 목사가 축사했다.

2부 순서는 대표회장 추대패, 법안대표 이사패, 상임회장 추대패, 상임회장 추대장, 신임교단 취임패, 자문위원위촉패, 자문위원취촉장, 지도위원위촉패, 임원임명장, 임명취임패, 공포배 증정, 사무총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상임회장 양창부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전석도목사하나사랑 기도회총재취임가져

지난 17일 여의도국회헌정기념관에서…“복있는 백성” 이남웅 목사설교

하나사랑 기도회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특별기도회와 하나사랑 총재 전석도 목사취임을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 사회로 1부 예배에 부총재 김영진 장로가 기도율, 해린교회 중장단의 특송에 이어, 한국기독교부흥사회의회 대표회장 이남웅 목사는 “복있는 백



전석도 목사

성”이란 제하의 설교를 하고 회계 김병선 목사가 헌금기도를, 상임총무 김병곤 목사가 광고를 대표회장 김진철 목사가 축도에 나섰다.

이날 총재 전석도 목사는 하나님

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 나갈 것을 취임사에서 밝혔다.

보수교단협의회의 발전위해 헌신 다짐

보수교단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취임



지왕철 목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보수교단협) 새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지왕철 목사는 보수신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비신앙적 신학사상을 걸러내는 보수신학 ‘지킴이’가 될 것을 지난 15일 다짐했다.

지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단사상의 위기앞에 몰신주의라는 세속적 가치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면서 “2년의 임기 동안 바른 신앙을 제시해 보수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 목사는 주요 사업으로 사이버 기독교 배척, 교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장교육, 해외선교사 훈련 회원교단 친목 강화 등을 제시했

다. 이밖에 목회자의 글쓰기 강좌와 히브리어 교육, 목회자 장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회원들 목회현장에 정력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히브리어 교육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실제 목회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되는 재교육과정이다. 지 목사는 예장 합동장신 총회장을 지난 바 있으며 예성교회를 담임학 있다. 보수교단협은 올 상반기 중 기독교 사회개혁의 구호를 담은 차량용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해가 되자”

대한기독교총연합회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취임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2008년 신년하례예배 및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갖고 말씀으로 한해가 되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기 이광수 목사의 사회로 가진 예배는 회계 김숙자 목사의 기도, 부회계 김성광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박영희 목사가 “말씀을 좇아 가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대표회장 취임인사, 총회부흥사회 및 총동문회 대표회장 한재근 목사의 신년인사, 특별기도는 부서기 이진설 목사가 나라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동서노회장 이승대 목사가 총회와 노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강북노회 이용철 목사가 총회신학과 지방신학을 위하여, 총회 부흥사회 사무총장 강정은 목사가 대한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하여 각각 기도한 후 증경총회장 남종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선교신학

- 인천 캠퍼스 : 부천시 오정구 작동 30-8 T. 010-2326-0017
- 부천 캠퍼스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6-4 T. 018-240-7119
- 충주 캠퍼스 : 충주시 단월동 180-8 T. 018-227-1854
- 전북 캠퍼스 : 전북 익산시 현영동 543-23 T. 010-4657-9171

국제 선교 신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정립)총회의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교단 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전문화, 특수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선교신학은 성경중심, 실천신학, 영성, 인성교육등으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모든 이들에게 목회자 선교사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밝은 미래의 국제 선교 신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2008년도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구 분	학 과	학 계	모집정원	자 격
신 학 부	신 학 과	4	20	고졸이상졸업자 및 동등학력소지자
	목 회 학과	4	20	고졸이상졸업자 및 동등학력소지자
	선 교 학과	4	20	고졸이상졸업자 및 동등학력소지자
	여목회학과	4	20	학 력 불 문
신학연구원	신학연구과	3	20	신학부 및 대학원 졸업소지자
	목회연구과	2	20	신학부 및 대학원 졸업소지자

졸업 후 특 전

1. 신학부 4년 졸업후 소정의(연구원)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음.
2. 여성 교육 이수자는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3. 성적이 우수한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4. 선교교역에 뜻이 있는분은 본 교단에서 교육과정을 거쳐 본교 좌초인된 해외선교사로 파송(미국, 호주,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

5. 장로, 권사, 집사님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6. 여목회학과는 서류 및 면접으로 수시 편입할 수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명감을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공부 못하신분, 시간관계가 허락치 않으신분, 건강으로 지연되신분들에게 신학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지방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반명함판 사진 4장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 서 교 부

본교서무과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67-30
전 화 : 02) 2299-4579, 2299-4589
F A X : 02) 2299-0903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인기총

제47대 총회장이 · 취임식 및 신년이사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 인천제일감리교회에서 제 47대 총회장 이, 취임식 및 신년이사회를 갖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관이 되자도 다짐했다.

이날 김 조 목사(공동회장 고신대학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장장옥 목사(공동회장 간석제일교회)의 기도, 박경복 장로의(공동회장 연합장로회장)의 성경봉독, 인천제일교회찬양대의 찬양, 이종복 감독(증경총회장, 은혜교회)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조준혁 목사(직전총회장, 남인천교회)의 이임사, 이기수 목사(서기, 탄석교회)의 총회장 소개, 이규학 감독(총회장, 인천제일교회)의



취임사, 서명섭 목사(증경총회장 흰돌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덕수 목사(공동회장 한일교회의 사회로 가진 신년인사 및 만찬은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경목위 원장에게 축하배, 47 총회장에게 감사패, 안상수 시장(인천광역시), 이

윤성 국회의원(한나라당의 축사, 최정성 목사(증경총회장, 동현교회)의 격려사, 황관하 목사(사무총장, 동암제일교회)의 내빈소개 및 광고, 신년인사 및 악수인사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온 세상에 선교를 위해 정진하는 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제18회 정기총회 … 14일 왕성교회서



김자연 목사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이사장 김자연 목사,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왕성교회(김자연 목사)에서 제 18차 정기총회를 갖고 온 세상에 선교를 위해 정진하는 해가 되기를 다짐했다.

이사장 김자연 목사의 사회로 가진 1부 개회예배는 법인이사 김경철 장로의 기도, 운영이사장 구 권영복 목사의 성경봉독, 왕성교회 찬양대의 찬양,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가 “바울

의 선교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가진 합심기도는 강대홍 선교사가 한국교회 선교활성화와 세계 선교 연합과 협력을 위해, 신방현 선교사가 국가, 민족, 공의의 정치, 경제, 회생 북한복음화를 위해, 조용중 선교사가 단체들의 2008년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 각각 기도한 후 법인이사 김명현 목사가 축도했다.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의 사회로 가진 2부 회무처리는 공동회장 최건호 목사의 기도, 이사장 김자연 목사의

인사말, 총회서기 이규왕 목사 회원점명,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의 신임회원 소개, 서기 이규왕 목사의 전회의록낭독, 감사 김종백 장로의 감사보고, 회계 권호기 장로의 회계보고,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의 사업보고, 회칙개정, 조직안 승인, 사업계획안 승인 수지예산안 승인, 신안건토의 후 폐회했다.

3부 법인이사 박래창 장로의 기도로 오찬과 전교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회적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자”

합동총회신학대학원 졸업식…대학부제 28회, 대학원 2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신학대학원(총장 김동한 목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대학부제 28회, 대학원 제 25회 2007학년도 졸업식을 갖고 목회적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했다.

이날 교학처장 최병욱 목사의 사회로 가진 1부 예배는 부산신학교학장 김진국 목사의 기도, 학생과장 송승호 목사의 성경봉독, 차영선 집사의 특별찬양, 총회장 이윤운 목사가 “믿음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했다. 2부 졸업예식은 교가제창, 학장 오명복 박사의 학사보고, 총장 김동한 박사의 졸업장 수여, 최우수, 우수 총장상, 공로상 수여, 오명복 박사의 최우수, 우수논문상, 이윤운



박사의 총회장상, 이사장 박만호 박사의 이사장상, 동문회장 김현우 박사의 동문회장상, 김동한 박사의 감사패 수여, 김동한 박사의 총장훈시,

대전신학교학장 윤선중 박사의 감사의 인사말씀, 증경총회장 박만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사명감당하는 목회자로”

선목총회신학연구원 신학원 및 대학부 졸업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선목총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신학원 제 101회, 대학부 제 27회 졸업식을 갖고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자도 다짐했다.

이날 김도길 박사의 사회아래 가진 졸업예배는 한정우 교수의 기도, 정선에 박사의 성경봉독, 김경순 목

사의 축가, 총장 김국경 박사가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학사보고 김국경 박사의 졸업장, 표창, 감사패 수여, 정승환 박사, 이광남 교수, 윤종곤 박사의 축사, 이병순 교수, 박민정 박사의 격려사, 김도길 박사의 인사 및 광고, 부총회장 유지수 박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개혁정통신학 선도하라”

개혁정통 직영 총회신학,신대원 졸업식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정통총회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직영 총회신학, 신대원 졸업식을 갖고 개혁정통신학을 선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했다. 이날 교무처장 김이철 목사의 사회로 가진 예배는 한동일 박사의 기도, 신지철 교수의 성경봉독 한바음 교당 중창단의 찬

양, 학장 김민식 박사가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는 제목으로 설교, 부산분교장 전상범 박사의 학사보고, 김민식 박사의 졸업장, 학위패, 상패 수여, 학장훈시, 이상택 박사의 격려사, 에강연 이사장 조성훈 목사, 연구원장 조중기 박사의 축사, 졸업생 대표인위종의 답사, 김이철 목사의 인사 및 광고, 학장 김민식 박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혁 목사

강변교회 ‘아름다운 세대교체’

김명혁 목사 원로추대…허태성 목사 취임감사예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강변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김명혁 원로목사 추대 및 허태성 후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갖고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했다.

Hi-MCCC 청소년겨울수련회 300백명 동참

Hi-M CCC(High and Middle Campus Crusade for Christ)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약 300명의 청소년, 교사 및 간사가 참가한 가운데 천안 호서대에서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다.

“Teenagers! Make renew your generation!”을 주제로 한 이번 청소년 겨울 수련회는 청소년들이 이땅을 새롭게 할 주역임을 알고, 영향력 있고 주체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 강사로는 신종곤 간사(가정선교원 원장)를 비롯, 정경호 간사(용인CCC 책임), 임우현 목사(문화복지 징검다리 대표, 정주HCCC 나사렛), 조종욱 간사(학원교육과), 석재환 간사(십대선교부 책임) 등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체 저녁 부흥회와 5개의 선택특강, 교회 교사를 위한 지도자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은 새신자를 위한 완소람(완전소중한사람),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훈련, 육성반으로 나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로 구성되었다. 푸른 문화 십대축제는 농구, 축구, CCD, CCM등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근 하 신 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담임 이선 목사

담임 이선 목사 외 교우 일동

예배 및 모임안내

기 관	시 간	장 소	기 관	시 간	장 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1부 주일 오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2부 주일 오전 9:00	
	주일 오후 3:00			3부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철야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설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수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효성아파트 205동 앞)
전화 : 02-430-9107 Fax 02-401-7954 홈페이지 : www.haeksim.net

근 하 신 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택성도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담임 권세능 목사 외 성도 일동

주소 : (451-873) 경기 평택시 오성면 속성리 그린빌 아파트 102동 706호
전화번호 : 031-656-5830 E-mail : mlial7@hanmail.net

근 하 신 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앙양개광교회



담임 엄용수 목사

담임 엄용수 목사 외 교우 일동

주소 : (451-06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왕1동 1409-10
전화번호 : 031-384-6826

근 하 신 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연합회



총회장 박요한 목사



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4호
전화번호 : 02-745-5161 www.reform.or.kr

강사 소진우 목사
H.P. 011-267-1434

2007~2008년도 소진우목사 부흥성회 일정

2007년		2008년	
1월 1일	새벽 5:00, 7:00, 9:00, 11:00, 13:00, 15:00, 17:00, 19:00, 21:00, 23:00, 25:00, 27:00, 29:00, 31:00, 33:00, 35:00, 37:00, 39:00, 41:00, 43:00, 45:00, 47:00, 49:00, 51:00, 53:00, 55:00, 57:00, 59:00, 61:00, 63:00, 65:00, 67:00, 69:00, 71:00, 73:00, 75:00, 77:00, 79:00, 81:00, 83:00, 85:00, 87:00, 89:00, 91:00, 93:00, 95:00, 97:00, 99:00, 101:00, 103:00, 105:00, 107:00, 109:00, 111:00, 113:00, 115:00, 117:00, 119:00, 121:00, 123:00, 125:00, 127:00, 129:00, 131:00, 133:00, 135:00, 137:00, 139:00, 141:00, 143:00, 145:00, 147:00, 149:00, 151:00, 153:00, 155:00, 157:00, 159:00, 161:00, 163:00, 165:00, 167:00, 169:00, 171:00, 173:00, 175:00, 177:00, 179:00, 181:00, 183:00, 185:00, 187:00, 189:00, 191:00, 193:00, 195:00, 197:00, 199:00, 201:00, 203:00, 205:00, 207:00, 209:00, 211:00, 213:00, 215:00, 217:00, 219:00, 221:00, 223:00, 225:00, 227:00, 229:00, 231:00, 233:00, 235:00, 237:00, 239:00, 241:00, 243:00, 245:00, 247:00, 249:00, 251:00, 253:00, 255:00, 257:00, 259:00, 261:00, 263:00, 265:00, 267:00, 269:00, 271:00, 273:00, 275:00, 277:00, 279:00, 281:00, 283:00, 285:00, 287:00, 289:00, 291:00, 293:00, 295:00, 297:00, 299:00, 301:00, 303:00, 305:00, 307:00, 309:00, 311:00, 313:00, 315:00, 317:00, 319:00, 321:00, 323:00, 325:00, 327:00, 329:00, 331:00, 333:00, 335:00, 337:00, 339:00, 341:00, 343:00, 345:00, 347:00, 349:00, 351:00, 353:00, 355:00, 357:00, 359:00, 361:00, 363:00, 365:00, 367:00, 369:00, 371:00, 373:00, 375:00, 377:00, 379:00, 381:00, 383:00, 385:00, 387:00, 389:00, 391:00, 393:00, 395:00, 397:00, 399:00, 401:00, 403:00, 405:00, 407:00, 409:00, 411:00, 413:00, 415:00, 417:00, 419:00, 421:00, 423:00, 425:00, 427:00, 429:00, 431:00, 433:00, 435:00, 437:00, 439:00, 441:00, 443:00, 445:00, 447:00, 449:00, 451:00, 453:00, 455:00, 457:00, 459:00, 461:00, 463:00, 465:00, 467:00, 469:00, 471:00, 473:00, 475:00, 477:00, 479:00, 481:00, 483:00, 485:00, 487:00, 489:00, 491:00, 493:00, 495:00, 497:00, 499:00, 501:00, 503:00, 505:00, 507:00, 509:00, 511:00, 513:00, 515:00, 517:00, 519:00, 521:00, 523:00, 525:00, 527:00, 529:00, 531:00, 533:00, 535:00, 537:00, 539:00, 541:00, 543:00, 545:00, 547:00, 549:00, 551:00, 553:00, 555:00, 557:00, 559:00, 561:00, 563:00, 565:00, 567:00, 569:00, 571:00, 573:00, 575:00, 577:00, 579:00, 581:00, 583:00, 585:00, 587:00, 589:00, 591:00, 593:00, 595:00, 597:00, 599:00, 601:00, 603:00, 605:00, 607:00, 609:00, 611:00, 613:00, 615:00, 617:00, 619:00, 621:00, 623:00, 625:00, 627:00, 629:00, 631:00, 633:00, 635:00, 637:00, 639:00, 641:00, 643:00, 645:00, 647:00, 649:00, 651:00, 653:00, 655:00, 657:00, 659:00, 661:00, 663:00, 665:00, 667:00, 669:00, 671:00, 673:00, 675:00, 677:00, 679:00, 681:00, 683:00, 685:00, 687:00, 689:00, 691:00, 693:00, 695:00, 697:00, 699:00, 701:00, 703:00, 705:00, 707:00, 709:00, 711:00, 713:00, 715:00, 717:00, 719:00, 721:00, 723:00, 725:00, 727:00, 729:00, 731:00, 733:00, 735:00, 737:00, 739:00, 741:00, 743:00, 745:00, 747:00, 749:00, 751:00, 753:00, 755:00, 757:00, 759:00, 761:00, 763:00, 765:00, 767:00, 769:00, 771:00, 773:00, 775:00, 777:00, 779:00, 781:00, 783:00, 785:00, 787:00, 789:00, 791:00, 793:00, 795:00, 797:00, 799:00, 801:00, 803:00, 805:00, 807:00, 809:00, 811:00, 813:00, 815:00, 817:00, 819:00, 821:00, 823:00, 825:00, 827:00, 829:00, 831:00, 833:00, 835:00, 837:00, 839:00, 841:00, 843:00, 845:00, 847:00, 849:00, 851:00, 853:00, 855:00, 857:00, 859:00, 861:00, 863:00, 865:00, 867:00, 869:00, 871:00, 873:00, 875:00, 877:00, 879:00, 881:00, 883:00, 885:00, 887:00, 889:00, 891:00, 893:00, 895:00, 897:00, 899:00, 901:00, 903:00, 905:00, 907:00, 909:00, 911:00, 913:00, 915:00, 917:00, 919:00, 921:00, 923:00, 925:00, 927:00, 929:00, 931:00, 933:00, 935:00, 937:00, 939:00, 941:00, 943:00, 945:00, 947:00, 949:00, 951:00, 953:00, 955:00, 957:00, 959:00, 961:00, 963:00, 965:00, 967:00, 969:00, 971:00, 973:00, 975:00, 977:00, 979:00, 981:00, 983:00, 985:00, 987:00, 989:00, 991:00, 993:00, 995:00, 997:00, 999:00, 1001:00, 1003:00, 1005:00, 1007:00, 1009:00, 1011:00, 1013:00, 1015:00, 1017:00, 1019:00, 1021:00, 1023:00, 1025:00, 1027:00, 1029:00, 1031:00, 1033:00, 1035:00, 1037:00, 1039:00, 1041:00, 1043:00, 1045:00, 1047:00, 1049:00, 1051:00, 1053:00, 1055:00, 1057:00, 1059:00, 1061:00, 1063:00, 1065:00, 1067:00, 1069:00, 1071:00, 1073:00, 1075:00, 1077:00, 1079:00, 1081:00, 1083:00, 1085:00, 1087:00, 1089:00, 1091:00, 1093:00, 1095:00, 1097:00, 1099:00, 1101:00, 1103:00, 1105:00, 1107:00, 1109:00, 1111:00, 1113:00, 1115:00, 1117:00, 1119:00, 1121:00, 1123:00, 1125:00, 1127:00, 1129:00, 1131:00, 1133:00, 1135:00, 1137:00, 1139:00, 1141:00, 1143:00, 1145:00, 1147:00, 1149:00, 1151:00, 1153:00, 1155:00, 1157:00, 1159:00, 1161:00, 1163:00, 1165:00, 1167:00, 1169:00, 1171:00, 1173:00, 1175:00, 1177:00, 1179:00, 1181:00, 1183:00, 1185:00, 1187:00, 1189:00, 1191:00, 1193:00, 1195:00, 1197:00, 1199:00, 1201:00, 1203:00, 1205:00, 1207:00, 1209:00, 1211:00, 1213:00, 1215:00, 1217:00, 1219:00, 1221:00, 1223:00, 1225:00, 1227:00, 1229:00, 1231:00, 1233:00, 1235:00, 1237:00, 1239:00, 1241:00, 1243:00, 1245:00, 1247:00, 1249:00, 1251:00, 1253:00, 1255:00, 1257:00, 1259:00, 1261:00, 1263:00, 1265:00, 1267:00, 1269:00, 1271:00, 1273:00, 1275:00, 1277:00, 1279:00, 1281:00, 1283:00, 1285:00, 1287:00, 1289:00, 1291:00, 1293:00, 1295:00, 1297:00, 1299:00, 1301:00, 1303:00, 1305:00, 1307:00, 1309:00, 1311:00, 1313:00, 1315:00, 1317:00, 1319:00, 1321:00, 1323:00, 1325:00, 1327:00, 1329:00, 1331:00, 1333:00, 1335:00, 1337:00, 1339:00, 1341:00, 1343:00, 1345:00, 1347:00, 1349:00, 1351:00, 1353:00, 1355:00, 1357:00, 1359:00, 1361:00, 1363:00, 1365:00, 1367:00, 1369:00, 1371:00, 1373:00, 1375:00, 1377:00, 1379:00, 1381:00, 1383:00, 1385:00, 1387:00, 1389:00, 1391:00, 1393:00, 1395:00, 1397:00, 1399:00, 1401:00, 1403:00, 1405:00, 1407:00, 1409:00, 1411:00, 1413:00, 1415:00, 1417:00, 1419:00, 1421:00, 1423:00, 1425:00, 1427:00, 1429:00, 1431:00, 1433:00, 1435:00, 1437:00, 1439:00, 1441:00, 1443:00, 1445:00, 1447:00, 1449:00, 1451:00, 1453:00, 1455:00, 1457:00, 1459:00, 1461:00, 1463:00, 1465:00, 1467:00, 1469:00, 1471:00, 1473:00, 1475:00, 1477:00, 1479:00, 1481:00, 1483:00, 1485:00, 1487:00, 1489:00, 1491:00, 1493:00, 1495:00, 1497:00, 1499:00, 1501:00, 1503:00, 1505:00, 1507:00, 1509:00, 1511:00, 1513:00, 1515:00, 1517:00, 1519:00, 1521:00, 1523:00, 1525:00, 1527:00, 1529:00, 1531:00, 1533:00, 1535:00, 1537:00, 1539:00, 1541:00, 1543:00, 1545:00, 1547:00, 1549:00, 1551:00, 1553:00, 1555:00, 1557:00, 1559:00, 1561:00, 1563:00, 1565:00, 1567:00, 1569:00, 1571:00, 1573:00, 1575:00, 1577:00, 1579:00, 1581:00, 1583:00, 1585:00, 1587:00, 1589:00, 1591:00, 1593:00, 1595:00, 1597:00, 1599:00, 1601:00, 1603:00, 1605:00, 1607:00, 1609:00, 1611:00, 1613:00, 1615:00, 1617:00, 1619:00, 1621:00, 1623:00, 1625:00, 1627:00, 1629:00, 1631:00, 1633:00, 1635:00, 1637:00, 1639:00, 1641:00, 1643:00, 1645:00, 1647:00, 1649:00, 1651:00, 1653:00, 1655:00, 1657:00, 1659:00, 1661:00, 1663:00, 1665:00, 1667:00, 1669:00, 1671:00, 1673:00, 1675:00, 1677:00, 1679:00, 1681:00, 1683:00, 1685:00, 1687:00, 1689:00, 1691:00, 1693:00, 1695:00, 1697:00, 1699:00, 1701:00, 1703:00, 1705:00, 1707:00, 1709:00, 1711:00, 1713:00, 1715:00, 1717:00, 1719:00, 1721:00, 1723:00, 1725:00, 1727:00, 1729:00, 1731:00, 1733:00, 1735:00, 1737:00, 1739:00, 1741:00, 1743:00, 1745:00, 1747:00, 1749:00, 1751:00, 1753:00, 1755:00, 1757:00, 1759:00, 1761:00, 1763:00, 1765:00, 1767:00, 1769:00, 1771:00, 1773:00, 1775:00, 1777:00, 1779:00, 1781:00, 1783:00, 1785:00, 1787:00, 1789:00, 1791:00, 1793:00, 1795:00, 1797:00, 1799:00, 1801:00, 1803:00, 1805:00, 1807:00, 1809:00, 1811:00, 1813:00, 1815:00, 1817:00, 1819:00, 1821:00, 1823:00, 1825:00, 1827:00, 1829:00, 1831:00, 1833:00, 1835:00, 1837:00, 1839:00, 1841:00, 1843:00, 1845:00, 1847:00, 1849:00, 1851:00, 1853:00, 1855:00, 1857:00, 1859:00, 1861:00, 1863:00, 1865:00, 1867:00, 1869:00, 1871:00, 1873:00, 1875:00, 1877:00, 1879:00, 1881:00, 1883:00, 1885:00, 1887:00, 1889:00, 1891:00, 1893:00, 1895:00, 1897:00, 1899:00, 1901:00, 1903:00, 1905:00, 1907:00, 1909:00, 1911:00, 1913:00, 1915:00, 1917:00, 1919:00, 1921:00, 1923:00, 1925:00, 1927:00, 1929:00, 1931:00, 1933:00, 1935:00, 1937:00, 1939:00, 1941:00, 1943:00, 1945:00, 1947:00, 1949:00, 1951:00, 1953:00, 1955:00, 1957:00, 1959:00, 1961:00, 1963:00, 1965:00, 1967:00, 1969:00, 1971:00, 1973:00, 1975:00, 1977:00, 1979:00, 1981:00, 1983:00, 1985:00, 1987:00, 1989:00, 1991:00, 1993:00, 1995:00, 1997:00, 1999:00, 2001:00, 2003:00, 2005:00, 2007:00, 2009:00, 2011:00, 2013:00, 2015:00, 2017:00, 2019:00, 2021:00, 2023:00, 2025:00, 2027:00, 2029:00, 2031:00, 2033:00, 2035:00, 2037:00, 2039:00, 2041:00, 2043:00, 2045:00, 2047:00, 2049:00, 2051:00, 2053:00, 2055:00, 2057:00, 2059:00, 2061:00, 2063:00, 2065:00, 2067:00, 2069:00, 2071:00, 2073:00, 2075:00, 2077:00, 2079:00, 2081:00, 2083:00, 2085:00, 2087:00, 2089:00, 2091:00, 2093:00, 2095:00, 2097:00, 2099:00, 2101:00, 2103:00, 2105:00, 2107:00, 2109:00, 2111:00, 2113:00, 2115:00, 2117:00, 2119:00, 2121:00, 2123:00, 2125:00, 2127:00, 2129:00, 2131:00, 2133:00, 2135:00, 2137:00, 2139:00, 2141:00, 2143:00, 2145:00, 2147:00, 2149:00, 2151:00, 2153:00, 2155:00, 2157:00, 2159:00, 2161:00, 2163:00, 2165:00, 2167:00, 2169:00, 2171:00, 2173:00, 2175:00, 2177:00, 2179:00, 2181:00, 2183:00, 2185:00, 2187:00, 2189:00, 2191:00, 2193:00, 2195:00, 2197:00, 2199:00, 2201:00, 2203:00, 2205:00, 2207:00, 2209:00, 2211:00, 2213:00, 2215:00, 2217:00, 2219:00, 2221:00, 2223:00, 2225:00, 2227:00, 2229:00, 2231:00, 2233:00, 2235:00, 2237:00, 2239:00, 2241:00, 2243:00, 2245:00, 2247:00, 2249:00, 2251:00, 2253:00, 2255:00, 2257:00, 2259:00, 2261:00, 2263:00, 2265:00, 2267:00, 2269:00, 2271:00, 2273:00, 2275:00, 2277:00, 2279:00, 2281:00, 2283:00, 2285:00, 2287:00, 2289:00, 2291:00, 2293:00, 2295:00, 2297:00, 2299:00, 2301:00, 2303:00, 2305:00, 2307:00, 2309:00, 2311:00, 2313:00, 2315:00, 2317:00, 2319:00, 2321:00, 2323:00, 2325:00, 2327:00, 2329:00, 2331:00, 2333:00, 2335:00, 2337:00, 2339:00, 2341:00, 2343:00, 2345:00, 2347:00, 2349:00, 2351:00, 2353:00, 2355:00, 2357:00, 2359:00, 2361:00, 2363:00, 2365:00, 2367:00, 2369:00, 2371:00, 2373:00, 2375:00, 2377:00, 2379:00, 2381:00, 2383:00, 2385:00, 2387:00, 2389:00,		